



전북대가 24일 오전 11시 진수당 대회의실에서 협력대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22개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위해 22개 기관 뭉쳤다

전북대,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연 13억7천 투입... 농생명·공간분야 등 인재 양성

지난 7월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 사업에 함께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 사업의 선도대학인 전북대는 24일 오전 11시 진수당 대회의실에서 협력대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22개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전북대를 비롯한 권역별 12개 대학이 산·학·

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무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대가 주축이 돼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등 지역 내 대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등이 협력한다.

또 국가기관인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순수본 주식회사, 풀림파미테(주),

(주)밀부밸런스, 반핵소염농조합, 전복체리 등 지역산업체 등도 참여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이번 선정에서 12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고 지원금을 확보해 앞으로의 활발한 사업이 기대되고 있다.

5년 간 정부 지원과 지자체 및 대학별 대응금 등을 포함해 매년 13억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생명 및 연·관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컨소시엄 대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전방위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농생명 분야에 적용하던 교육과정을 연·관, 전기안전, 공간분

야 등의 분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 우수인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를 비롯한 협력대학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자체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인·물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이어져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원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유출로 인한 입학지원 급감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협력대학 및 기관, 기업 등이 이 사업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긴밀히 소통한다면 지역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일까지 와글와글 환경학교 실시

도내 학생들이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초록살전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26일까지 도내 각 학교, 전주동물원, 전주천 등지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등 50팀(1팀당 15~30명 이하)을 대상으로 2019 와글와글 환경학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와글와글 환경학교는 최근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동물복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오감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환경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숲과 생태 ▲자연순환(에너지, 자원재활용) ▲환경보전(건강한 먹거리,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동물복지 ▲전주천의 생태와 역사 등으로 5개 분야에 10학급씩 2시간 동안 참여한다.

참가자는 학급, 동아리 단위 등 단체 신청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시간과 장소, 수업주제 등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 자원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무분별하게 훼손된 자연은 메아리가 되어 환경문제로 돌아온다.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환경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연순환(에너지, 자원재활용) ▲환경보전(건강한 먹거리,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동물복지 ▲전주천의 생태와 역사 등으로 5개 분야에 10학급씩 2시간 동안 참여한다.

참가자는 학급, 동아리 단위 등 단체 신청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시간과 장소, 수업주제 등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 자원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무분별하게 훼손된 자연은 메아리가 되어 환경문제로 돌아온다.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환경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숲과 생태 ▲자연순환(에너지, 자원재활용) ▲환경보전(건강한 먹거리,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동물복지 ▲전주천의 생태와 역사 등으로 5개 분야에 10학급씩 2시간 동안 참여한다.

참가자는 학급, 동아리 단위 등 단체 신청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시간과 장소, 수업주제 등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3일 '전대청춘'의 성공적 여정을 다짐하는 발대식이 있었다.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실천

전주대, 지역혁신 비전선포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4일 본교 예술관에서 'Better Together, 함께 하는 혁신'을 슬로건으로 '지역혁신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은 대학, 기업, 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도모하는 지역단위 상호협력의 개념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 속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전주대는 '지역혁신의 주체'로

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확립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회적 혁신을 위해 앞장 서고자 이날 지역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지역혁신'에서 대학의 역할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전라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및 전주시의원, 전주대 임정엽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의회, 사회적기업과 기관의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대는 지역혁신의 미래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지역혁신 추

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추진해 나아가야 할 지역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해숙 상임대표, 전주대 이호인 총장이 함께 '지역혁신 퍼포먼스'와 '지역혁신 선언'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전북의 인재 육성, 연구, 기업 유치, 산학협력 등을 선도해 온 전주대학교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혁신 주체와 협력하여 혁신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지역혁신은 홀로 할

수 없고, 민간산학연 등 혁신 주체가 상호 네트워크와 공동학습·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민간과 정부, 지자체, 기업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는 ▲삼기 좋은 사회적 환경과 커뮤니티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방식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리빙랩 기반의 혁신적인 경험학습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지역혁신 핵심 5대 과제로 도출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박문제 인식 확산 위해 학술행사 개최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도박문제 인식주간 학술행사'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린다.

전북대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

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이하 전북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도박중독에서 우리가족 지키기'라는 주제로 도박 중독자 가족과 청소년 도박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전북센터 운영위원장인 전북대 심리학과 이영순 교수가 '도박의 뒷에 빠진 가족'을 주제로 발제하는 것을 비롯해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선중 교수의 '청소년 도박문제와 대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오남경 센터장은 "최근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모두가 도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학술행사를 통해 도박문제와 대처방안을 알리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1운동 발원지를 찾아서

전북대생들, 오늘부터 블라디보스톡 역사 기행 안중근·이상설 유적지 등 독립운동 현장 방문

올해가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발원지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난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직접 밟아 보며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전북대는 지난 3월에도 '전대청춘'이라는 대학 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구려 유적과 항일운동의 본산인 중국 환인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학기 '전대청춘'에는 34명의 학생이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역사기행을 떠난다. 기행 주재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를 말하라고

잡았다. 23일에는 성공적 여정을 다짐하는 발대식이 있었다. 이들의 공식 일정은 9월 28일 시

작된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체험하고, 안중근 기념비와 이상설 선생 유허비, 신한촌 등 독립운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적지를 찾는다. 또한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을 찾아 해외 대학과의 교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열린 발대식에서 김진희 부총장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직접 찾아 나선 학생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고 싶다"며 "독립운동의 발원지를 직접 찾아 선인들의 기개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2017년부터 매년 '전대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2019 우수축제 선정

2019 IMSIL N CHEESE FESTIVAL

임실N치즈 축제

10.03(목) ~ 10.06(일)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마을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

BIG ISSUE

임실N치즈 20% 할인

한우 암소고기 판매

체임관내 B코스 50% 할인

주요볼거리·체험·먹거리

천만송이 국화 전시, 축하공연,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임실N치즈페어(치즈시장),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예제, 전국어린이치즈요리경연대회, 치즈요리 나눔행사, 아모르 파티(EDM) / 유가공업체 판매장, 한우명품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치즈할인판매 등

주관 /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임실군 2019 축제보조금지원